

히비스커스추출물

the garden of
naturalsolution
www.naturalsolution.co.kr



12-24, Gajangsaneopseo-ro, Osan-si, Gyeonggi-do, 18103, Republic of Kore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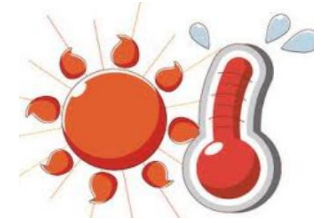
TEL: +82-31-374-5240 FAX: +82-31-374-5246

히비스커스



- 한글전성분명 : 히비스커스꽃추출물
- INCI name : Hibiscus Sabdariffa Flower Extract
- IECIC 2015 : Hibiscus Sabdariffa Flower Extract

-
- 히비스커스는 당아욱과(Malvaceae) 무궁화속에 속하는 초본, 관목, 나무로 250여 종이 있다.
 - 따뜻하고 온화한 지역과 열대지역이 원산지이다. 열대성 chinese hibiscus는 길이가 4.5m에 달하고, 경작시 2m를 초과하는 것도 간혹 있다.
 - 꽃은 크고, 붉은색을 띠며, 단독으로 피며, 종모양을 하고 있다. 흰색, 노란색, 오렌지색의 꽃을 가진 변종을 경작한다면, 종종 두송이의 꽃을 피운다. Japanese hibiscus 는 실내의 걸이용 바구니에서 재배되기도 한다.



히비스커스

- 히비스커스는 동맥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혈액을 맑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.
- 열이 많은 나는 사람의 체온을 낮춰주는, 냉각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내의 열을 줄여준다.
- 활성산소의 발생과 작용을 억제하는 **항산화작용 및 항노화 효과**를 나타낸다.
- 또한, 피부와 관련하여 **히비스커스로부터 분리된 다당류가 각질세포의 초기 분화를 유도하여 각질세포 증식률을 40 %까지 유도하였다는 논문**이 보고된 바 있다. 피부는 세포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 각질층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어, 피부의 수분 보유력이 떨어지고, 피부 장벽 기능이 저하된다. 따라서, 히비스커스추출물은 **피부보습력을 유지시키고, 장벽기능을 강화시켜 건강하고 탄력적인 피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**
- 히비스커스는 여성 호르몬에 작용해 생리주기를 조절하여 월경 불순을 바로 잡아주고, **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부종을 없애준다.**
-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 준다.



Polysaccharides from *Hibiscus sabdariffa* Flowers Stimulate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Human Keratinocytes

C. Brunold¹, A. Deters¹, F. Knoepfel-Sidler¹, J. Hafner², B. Müller¹, A. Hensel¹

Abstract

Raw polysaccharides, previously described in detail, were isolated from the flowers of *Hibiscus sabdariffa* L. and fractionated by ion exchange chromatography into one neutral and three acidic subfractions. Raw polysaccharides and all acidic subfractions caused a strong induction of proliferation of human keratinocytes (HaCaT) of up to 40 %, while the neutral polymers were ineffective. While mitochondrial activity was not influenced, raw polysaccharides induced early differentiation of primary natural human keratinocytes, as determined by involucrin formation.

히비스커스



- 속명의 Hibicus는 이집트의 ‘hibis(신)’과 그리스의 ‘isco(같다)’의 합성어로 ‘신에게 바치는 꽃’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히비스커스는 클레오파트라가 히비스 여신을 숭상하여 신전을 세우고 이 꽃을 바쳤으며 여신과 같이 아름다워지기 위해 히비스커스 차를 마시고 목욕을 했다고 전해진다.
- 흔히 식용으로 먹는 히비스커스는 *Hibiscus sabdariffa*이며 미국에서는 로젤, 플로리다 클랜베리 라고도 불린다. 아프리카가 원산지로 추정되는 히비스커스는 기원전 4,000년전부터 식용으로 사용된 허브 종류이다.
- 히비스커스는 무궁화과에 속하는 허브로 꽃잎이 붉은 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, 이 붉은 색소에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차로 섭취 시 피부에 좋으며, 신맛의 성분인 구연산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피로 회복제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초본식물이다.
- 열대 지방, 중국 등에서 널리 재배되며, 태양이 내뿜는 열기로 무더운 여름에, 새콤하게 우려낸 히비스커스 차를 차갑게 하여 마시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다.

히비스커스 관련 논문

항산화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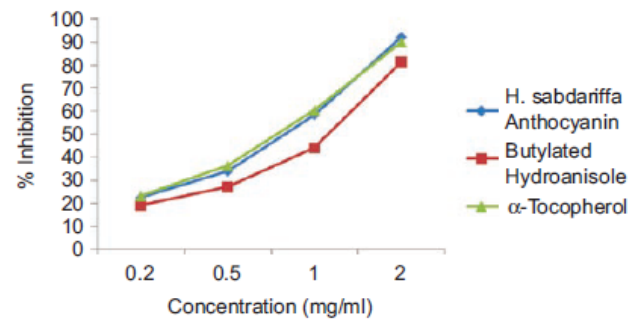


Figure 2. Scavenging effect of *H. sabdariffa* anthocyanins on DPPH radical.

α -tocopherol과 히비스커스 안토시아닌 추출물은 비슷한 소거 효과를 나타내었다.

Go for
Nature,

Go with
NaturalSolution!

"We are always upgrading to serve you better"

